

- 주요 뉴스: 1월FOMC 의사록 필요 시 통화긴축 가속화 금리인상 관련 구체적 합의는 부재
 - 영국 1월 소비자물가, 3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의 러시아 병력은 여전히 증가
 - 중국 1월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전월비 둔화. 통화정책 완화 여지 확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의사록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통화긴축 가속화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원자재 관련주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충하며 보합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FOMC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따적이지 않다는 평가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모두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지속 등이 원인
독일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3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97.5원, -0.9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2/16일	2/15일	전일대비			2/16일	2/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75.0	4,471.1	0.09%	국채 금리 10y	미국	2.04%	2.04%	-1bp
	유럽	467.77	467.56	0.04%		독일	0.28%	0.31%	-3bp
	중국	3,465.8	3,446.1	0.57%	CDS 5y	한국	27bp	28bp	-1bp
	일본	27,460	26,865	2.22%		중국	52bp	53bp	-1bp
	한국	2,729.7	2,676.5	1.99%	위험 지표	EMBI+	-	413	-
환율	달러지수	95.82	95.99	-0.18%		VIX	24.29	25.70	-5.49%
	유로화	1.1373	1.1359	0.12%		WTI유	93.66	92.07	1.73%
	엔화	115.52	115.61	0.08%	원자재	구리	453.7	453.2	0.12%
	위안화	6.3372	6.3393	0.03%		금	1,869.8	1,853.6	0.87%
	원화	1,197.6	1,199.8	0.1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월 FOMC 의사록, 필요 시 통화긴축 가속화. 금리인상 관련 구체적 합의는 부재

- 지난 1월 FOMC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대만큼 완화되지 않으면 통화긴축 속도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을 피력. 금리인상은 '15년 혹은 '18년보다(분기별로 1회 이하의 금리인상 시행)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금리인상을 시작한 후에는 보유 채권 매각도 곧바로 시행해야 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가 매우 크기에 이는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다만 금리인상 혹은 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합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 파월 의장은 금년이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탈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일부 위원들은 신속한 통화정책 전환이 금융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언
- Pantheon Macroeconomics의 Ian Shepherdson은 3월 0.5% 금리인상 가능성 혹은 보유 채권 매각 시작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이 부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는 예상보다 매파적(hawkish)이지 않다고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은 과도한 금리인상을 경계할 필요

- 카슈카리 총재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금리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혹은 높게 인상할 경우, 이는 성장 모멘텀을 저해하여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미국 1월 소매매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전월비 큰 폭 증가

- 같은 달 소매매출은 전월비 3.8% 늘어 '21년 12월(-2.5%) 대비 급반등. BMO Capital의 Sal Guatieri는 고물가 여건에서도 소비 여력이 양호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

■ ECB, 유로존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을 경고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사무실 수요가 감소하고, 가계는 주택대출 관련 부채가 증가. 이러한 가운데 은행은 사무실 혹은 주택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다고 지적

■ EU 집행위원장,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 일부 중단되어도 대처 가능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에서의 공급이 불안정해도 미국, 카타르 등과 추가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협의했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

■ 영국 1월 소비자물가, 30년래 최고치. 영란은행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5.5% 상승. 선물시장에서는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 RSM의 Thomas Pugh는 일단 3,5월 2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후에는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참고하여 추가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의 러시아 병력은 여전히 증가

- 엔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대규모 병력을 접경지역에 주둔시키고 있다고 발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긴장완화의 징후는 없다고 지적

■ 중국 1월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전월비 둔화. 통화정책 완화 여지 확대

- 같은 달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9.1% 올라 6개월 만에 최저. 이번 결과는 정부의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 정책 등에 기인.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동월비 0.9% 상승하여 전월(1.5%) 및 예상치(1.0%)를 모두 하회
- Capital Economics의 Sheana Yue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는 인민은행이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시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2/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수입물가(전년동월비): 10.8%, '21년 12월(10.2%), 예상치(9.3%)
- 미국 '21년 12월 기업재고: 2.1%, 11월(1.5%), 예상치(2.1%)
- 미국 1월 산업생산(전월비): 1.4%, '21년 12월(-0.1%), 예상치(0.4%)
- 미국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82, 1월(83), 예상치(83)

■ 주요 경제 이벤트(2/17 현지시각 기준)

- ECB 슈나벨 및 레인 이사 강연, 미국 1월 주택착공건수
- 미국 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 역할 축소, 지정학적 위험 비용을 초래 - The New York Times**
(Don't Wish for a Post-Pax Americana)
 -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탈미국 패권주의의 지침서가 될 가능성. 이는 미국 정부가 세계경찰의 역할을 내려놓고 국방력 축소, 협력적 외교 정책, 탈세계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자국 내 복지 및 산업발전에 집중한다는 의미
 - 그러나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 역할 축소 시 UN 등에 의한 국가 간 분쟁 및 침략행위 해결은 기대난. 또한 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 이에 더해 탈세계화적 경제 전환은 세계경제 통제력 약화로 자국의 국익에도 부정적
- **연준의 통화긴축, 채권형 펀드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 - 블룸버그**
(Bond Funds Lurk as a Challenge to Fed's Inflation Fight)
 -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우려로 채권형 뮤추얼펀드, ETF 등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유출이 발생. 또한 향후 연이은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펀드 수익률의 추가 하락 혹은 자금유출 가속화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채권시장에서 비중이 큰 채권형 뮤추얼펀드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는 개인투자자의 패닉 혹은 환매중단까지 초래할 우려. 이에 투자자와 정책당국은 채권시장의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
- **ECB 금리인상, 역내 금리 스프레드 확대 우려 등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 - WSJ**
(Raising Rates in Europe Isn't as Simple as It Sounds)
- **중국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긴축으로 장기간 지속은 기대난 - Financial Times**
(East-west divergence in central bank action will not last much longer)
- **미국의 임대료 상승 전망, 인플레이션 둔화를 예상보다 지체시킬 소지 - Financial Times**
(Rent inflation will stick)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